



## 개 회 사

###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앞으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과천시의회 의장 문봉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7대 과천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열리게 된 제1차 정례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시정을 열정과 헌신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시의회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월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임시회로 시정 업무보고 및 조례예산심의를 통해 시정 현안을 두루 파악하고 지역 민원의 해소를 위한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기 위한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과천시가 새롭게 도약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소통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신뢰와 소통·화합하는 과천 건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앞으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1회 정례회는 사전 공지된 바와 같이 2013년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 의견청취안 심사 및 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우리 시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이 우선인지를 함께 논의하고 대화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은 없는지,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을 가져주시고 함께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함께 만드는 생산적인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올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20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 2014. 9. 29. ~ 10. 15. (17일간)

주요안건 : -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심사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천시의회(의장 문봉선)는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0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윤미현)를 구성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운영하면서 시로부터 제출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13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홍천)에서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년간의 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31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였다.

제4차 본회의(10월 15일)에서는 윤미현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시 주요내용과 그 해결” 시정질문과 시장의 답변을 듣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 하였다.

과천시의회-소식

### 한눈에 보기

1면 제201회  
제1차 정례회

2면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3면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9면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 기 간 : 2014.9.29.~10.4.(4일간)
- 위원장 : 윤미현      • 간사 : 제갈임주
- 위 원 : 이흥천, 안영, 고금란, 이수진



### 의결사항

-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2건

연번	안 건 명	의결결과
1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 안
2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 안
3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4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수 정
5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6	과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원 안
7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8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9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10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11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 안
12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13	과천(가일·세곡)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 안
14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47호선 우회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 안
15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 안

#### 수정이유

-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 내용 중 과천시 지역 현안에 대한 자문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함

#### 수정내용

-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 제①항의 내용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

-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함

#### 수정내용

- 안 제6조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 제③항의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
  - \* (근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④항)
- 안 제6조 제④항의 위원 구성에 시의원을 신설함
  -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삽입

### 과천(가일, 세곡)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시의회 의견

구 분	제 출 의 건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의견 없음"
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 없음"
용도지구결정(변경)	"의견 없음"
지구단위 계획구역결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일, 세곡지구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따라 공원 녹지(소공원, 경관녹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공공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거주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되나, 사전 연차별 계획수립 등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 등)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li> </ul>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 없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일, 세곡지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익사업시 (도로개설 등)지중화가 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li> <li>• 가일지구는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연계된 도로망이 일부 단절되어 있으니 도로망이 구축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li> <li>• 세곡지구는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통과차량증가로 환경오염 발생 등(대기, 소음 등)이 예상되니 주민생활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람.</li> </ul>

###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47호선 우회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구 분	제 출 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로2-가호선 (신설)</li> <li>• 중로2-8호선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혼잡 개선과 인근지구와 원활한 도로 연계성을 위하여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함에 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과천대로 접속은 도로용량의 과중한 부담으로 환경오염 (대기, 소음 등)발생과 첨두시간대(Peak time) 극심한 차량 정체 예상되고</li> <li>- 또한, 거주 주민피해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교통영향 분석(교통량 분산 방안 등)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고</li> <li>- 환경친화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li> </ul> </li> <li>• 아울러 과천대로의 극심한 차량 지 정체를 해소 하기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도 309호선인 과천-우면산간 도로 확장도 병행하여 추진하되, 도로확장으로 인한 환경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li> </ul> </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양 관양지구 우회도로 광역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일환으로 심의 완료한 고가차도 형식에 대하여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천 이미지 제고와 도시미관 저해 등을 고려하여 평면교차로 또는 지하차도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의회사무과-683호, 2014. 8. 21호 관련)</li> </ul> </li> </ul>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기간 : 2014.10.6.~10.15.(15일간)
- 위원장 : 이흥천      • 간사 : 고금란
- 위 원 : 안영, 윤미현, 제갈임주, 이수진



## 주요 건의사항 (총131건)

### 기획감사실 10건

①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련하여 자료 작성 기간, 시점 등을 명확히 하고, 오타, 합계 등의 실수가 없도록 주의 바람.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경우는 별도 표기 등 자료의 통일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 자료 검토를 용이하게 작성하여 주기 바람.

② 위원회 관련, 위원 중에는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 되어 있는 경우와 위원회 최초 구성부터 현재까지 장기 임용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 위원회 구성이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으니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위원회를 정비 바람.

③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의하면 위원 명단, 회의록, 참석자의 발언 내용, 결정 사항 및 표결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공개에 소극적이며 위원 명단은 대부분 미공개임

- 규정에 따라 정확히 공개하도록 관리바라며, 회의록 비공개시에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바람.

※ 市 홈페이지 "위원회회의 공개"란 에 회의록 공개지침이 정확치 않으니 시정요망

④ 정부합동감사 및 道 종합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처리하고, 세무분야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향후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여 주기 바람.

⑤ 많은 종류의 기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니 점검 바람, 특히 사회단체기금은 기금운용목적에 따라 자립여부 판단 후 지원을 결정하여 신규 사회단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바람. 기금관리부서로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을 토대로 전 부서의 기금운용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 바람.

- 기금에서 270억을 차입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일부 기금은 정리해서 차입금을 상환하기 바람.

⑥ 민간단체와 관련된 모든 예산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사업 시행 후에는 담당부서에서 사업현장에 나가 정확한 사업평가를 통해 예산에 반영(일몰제 등) 하도록 관리 바람.

※ 향후 의원 간담회시 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별도 보고 요망

⑦ 민간위탁사업 감사에 대하여는 조례에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수입업종(주차장, 테니스장 등) 경우에는 소관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감사팀 등 제3자가 감사를 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사례를 파악하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⑧ 주민참여예산 관련 예산의 일정부분을 미리 확보하여 주시고, 주민예산 설명회 시, 법적 의무적 경비, 가용예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높이기 바람,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의회와 협의, 대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

⑨ 예비비 사용 시에는 꼭 사용해야 하는 적정한 사유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 주기 바람.

⑩ 시장 공약사항과 함께 시의원 공약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적기 추진하여 주기 바람.

### 주민생활지원실 8건

①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복지 등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마련, 타사업과 중복된 사업인지, 수혜자가 소수에게만 돌아가는지 검토·분석,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 바람.

② 종합사회복지관 구조조정을 위한 예산감액시 사업 수 조정 없이 예산액만 줄이는 형태는 사업 부실화 우려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개별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중복되는 사업이나 성과가 미약한 사업은 정리하고 통합할 사업은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2015년 예산수립시 반영 바람



③ 현재 과천은 유아 아동을 위한 바우처 사업만 있는데, 바우처 제도에 노인복지·취업 바우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잘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해주시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④ 종합사회복지관, 일자리센터 등의 위탁사업 선정절차 및 운영사항은 민간사무위탁조례(관련조례)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추진하는 문제가 있으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철저히 운영 바람.

-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탁사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수탁선정위원회 구성시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실수요자의 위원 위촉 방안을 강구 바람.

⑤ 공공부조기금과 관련 사업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지 점검하여 철저하게 관리·운영 바람.

⑥ 사회적 기업(마을기업)과 관련 육성위원회가 단순 선정심사에만 그치지 않고 전문가 위원의 자문을 잘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바람, 시의원 참여도 검토 바람.

⑦ 과천동 꿀벌마을의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한 식수문제해결에 관하여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통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⑧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 사례분석 등 목표를 세워 다각도로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특히 과천은 전문 인력이 많으니 업무습득 기회를 통해 전문성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등 방안을 모색 바람.

※ 노원구 사례 : 지방청정지역과 노동상생 협약체결을 통한 일자리 제공사업

### 안전총괄담당관 4건

① 경기도 종합감사시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하여 피복비, 여비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반드시 기금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재 법령과 조례,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정비하기 바람.

② 市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는데 5년마다 받는 인증비용에 상당

한 예산이 들어가 대외적 이미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됨. 인증과 실제 안전의 연관성은 약해 보임. 실질적인 안전지원 사업(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주기 바람.

※ 인증보다는 그에산으로 초·중·고교 자살·우울증 예방에 따른 안전사업 등은 호응도 좋고 효과도 있으니 검토 바람.

③ 향후 재건축, 보금자리주택 입주에 따라 고층아파트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층 화재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고가사다리 장비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검토하여 재난관리에 철저히 해주기 바람.

④ 꿀벌마을 식수문제와 관련, 여러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안전총괄담당관에서도 비상급수시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도시사업단 6건

① 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금액(56억)이 용역비용으로 들어갔는데 LH와의 용역 정산 시, 시 재정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기 바람,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주기 바람.

② 지식정보타운 보상 관련 LH의 일방적 추진은 문제가 있으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중재·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주기 바람.

③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분양관련, 입주기업 세제혜택, 기반시설 설치, 분양가 등 경쟁력 있는 요소들을 갖출 수 있도록 LH 등 관련기관과 잘 협의하여 성공적인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사례 분석 등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자 부담 등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 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④ 보금자리주택 부지 주변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은 위험시설물로 도심 외곽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한데, 이전

에 관한 사항 등 관련기관과 협의시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 바람.

⑤ 보금자리주택 부지를 관통하는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는 교각의 높이가 27미터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일조권 등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니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바람.

⑥ 3대 대형 공공사업(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은 그간 무리한 용역발주, 기회비용, 행정력 등 비용이 많이 낭비되었고, 장기간 추진에도 실적이 미흡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추진과정의 잘못된 사례를 분석, 민선 6기 공약사항 추진 때에는 현장에 대한 바른 인식과 현실화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신중히 임하기 바람.

- 강남벨트 등 새로운 개발사업 관련,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과도한 용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도시정비과 3건

① 용역 수행시 과업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추진하여 비용대비 용역결과가 매우 미흡함.

- 용역수행시 반드시 용역의 필요성 진단 및 소관 위원회 활용 등 용역과정에서 집행부가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고 주도적으로 참여, 활용 가능한 완성도 높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  
-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유사, 중복 과제를 발주하지 않도록 사전검증하고,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 반드시 사후 평가를 실시하기 바람.

② 정부과천청사 이전 과천시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은 청사 이전 대책보다는 청사 앞 유희지 활용방안에 중점을 두는 등 운용 실적이 미약함.

- 위원회 활동이 정치적인 개입이 아닌 행정도시로서 과천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③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존치 및 해제 등 후속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업무처리시 시의회와 의견을 공유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건설과 5건

① 과천전화국 앞 지하보도 활용 방안 관련 용역을 통해 해결하는 것 보다는 공청회나 이야기 마당 등의 형식으로 주민들과 직접 대화 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으니 검토 바람,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 지역임을 감안, 청소년 문화 공간 활용 및 수공예품 상설매장 등을 제안하니 검토 바람.

② 강남외곽순환도로 계획으로 인하여 인접소재 과천화훼단지의 진·출입로 동선 등에 문제가 발생되어 대책으로 부체도로를 조성계획 중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존하고 있으니 현장 조사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③ 시 점유지를 일반 주민이 사용하고 있다거나, 개인 사유지를 시에서 도로로 착오 점용하여 분쟁이 있거나 해서 크고 작은 민원이 계속 있는데, 도로계획개발 시, 주민들과 세심하게 대면하여 민원분쟁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④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교동길 가운데 큰 수목이 있어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에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현장 조사하여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⑤ 가족여성프라자는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지상 주차장이 없어 이용에 불편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위탁기관 선정 전 설계로 인해 재공사가 이루어졌음. 공사설계 시 초기단계부터 입주단체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 설계하여야 추후 준공 시에도 문제가 없으니 설계과정부터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축과 7건

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으면 완화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민을 위한 규제개선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우정병원 방치 문제는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이 쉽지 않으나 오래도록 제기된 문제이며,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니 우정병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③ 주암동 단독주택지역 사업타당성

용역이 시행되었는데 재개발 확정시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니, 세입자들의 의견 수렴 및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주기 바람.

④ 우리 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조례)이 그동안 시설투자 지원하였는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방향전환이 필요하니 검토 바람,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 (과천시) : 단지 내 도로, 보안 등 시설, 도색, 보도블럭 보수 등 (타시도) : 개방화장실 제공,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⑤ 각종 위원회는 구성 목적, 기능을 잘 활용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유명 무실한 위원회가 있으면 통합 또는 폐지 등 정리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요망

⑥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 도시의 디자인은 도시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단순 외관요양, 색채만이 아닌 생활편익기능(보도블록공사 시 유모차 사용, 장애인 경사로 설치 등)까지 고려하여 시의 정체성·통일성을 감안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주기 바람.

⑦ 현수막 게시대는 개인 광고업자가 미리 확보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공행사 홍보 등 주민들 사용에 어려움이 많음. 지정 게시대 확충 및 공용·비영리 홍보 전용 게시대 설치를 검토·시행하여 주기 바람.



교통과 8건

① 제일쇼핑, 새서울쇼핑 등 상가 앞 도로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상가이용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주차장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제안하니 검토해 보기 바람.

② 경마장 주변 벌말, 삼부골, 광창마을은 거주주민의 피해보상차원에서 영농조합법인에 주차장 용역을 위탁하였는데 운영상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수익금을 지역발전에 쓰게 되어 있으나, 특히 광창마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정산시 서류 점검 등 철저히 지도 바라며, 전반적으로 운영체계를 재검토 바람.

③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단순 서류 검토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체계적인 감사 매뉴얼을 구축하여 수입, 지출내역에 대해 지도 점검 바람.

④ 중앙공원내 오토바이 진입으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오토바이 차량들이 중앙공원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시설관리공단, 안전총괄담당관 및 오토바이 배달 상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람.

– 새마을금고 앞 공용주차장 일부를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바라며, 중앙공원 등을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오토바이 차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검토 바람.

⑤ 중심상가지역 자전거 무료 대여소 자전거가 대부분 고장상태이니 점검 바라며, 특히 인력운영에 있어 수리인력, 대여인력을 따로 관리하면 인건비 집행에 비효율적이니 수리 및 대여에 대한 교육지도를 통하여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⑥ 과천-양재간 지하철 타당성 용역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수지분석 등 타당성 용역 추진에 있어 전문가 자문 및 서초, 강남, 송파와 면밀한 협의 등 보수적이고 신중한 추진을 당부 드림

⑦ 시영버스 운영 관련 이용객 대비 예산지출이 과다한 면이 있음.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콜택시 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⑧ 단독, 아파트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점검하여 본래의 사업취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람.

민원봉사과 3건

①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되 특히, 민원분쟁 조정사항 등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②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과천시 부동산 중개업체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됨.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하되, 市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는 등 융통성 있게 지도하기 바람.

③ 행정모니터 사업은 보상금을 염두에 두고 제보를 하여 제보내용이 도로파손, 시설보수 등 단순한 내용으로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음. 市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및 대안 제시 등 주민들이 더 발전적인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 사업운영 방향에 대해 더 깊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사회복지과 7건

① 기금운영 관련 市 재정을 고려하여 단체사업 심의 時 행사성경비 등은 자제하고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다양하고 연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요망

– 일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는예산 과목(민간이전경비)의 적정 여부와 일몰제 적용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별 집행이 충실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요망

② 장애인 단체별 지원은 단체별 인원수 대비 과다한 예산이 지원되는 경향이 있음. 개별 수혜대상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단체별 운영 제반 사항을 점검하기 바람.

– 장기적 측면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직업·재활 교육임. 장애인 복지관의 빈 공간을 활용, 직업·재활프로그램 적극 운영 요망

③ 교통약자(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도입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집행 계획관련 교통과와 협의 바람.

④ 화성시와 화장장 이용 계획이 백지화되었음. 시민들의 이용 편의, 이용요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⑤ 관내 결식아동(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들에게 주말에도 급식 제공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⑥ 가족여성프라자 설계시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나 시공시 설계의 누락 및 오류 등의 발견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짐.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⑦ 재정악화로 인한 민간어린이집 지원 축소로 부모, 보육시설의 부담 증가 및 교사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교육환경의 안전성 확보와 보육 예산 확충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람.

교육청소년과 8건

①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되는 영어체험장 운영 時 정기적인 정산 및 재무평가, 보증보험가입 등 재정 위험 회피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라며, 수지분석 및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 결과를 향후 예산 지원시 참고하기 바람.

②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은 유해성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교체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판단되니, 교체방안에 대해 폭 넓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학교시설 대관 및 개방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하고 형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및 관련 위원회에 학부모 참여 방안도 강구 바람

③ 청소년운영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과천의 여러 학교 청소년들이 골고루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운영바람.

④ 지식정보타운 관련 주택분양수가

당초 3,200세대에서 8,100세대로 증가 되었는데 초·중학교 설치와 관련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니 교육청 및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학교 설립 공약사항에 관련하여 위치 선정 등도 병행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⑤ 중·고 방과후교실 운영사업은 외부 학원 강사가 가르치는 사업형태로 기존 학원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대상자 역시 어려운 계층이 아닌 일반학생자중 신청학생임을 감안할 때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사업효과가 있는지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운영방식을 재검토하기 바람.

⑥ 범죄예방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성 경비나 사무실 임대료에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건 아닌지 단속 및 계도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점검을 통해 실질적으로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 바람.

⑦ 신규 사업인 휴먼라이브러리, 옐로 밴드, 하이파이브 등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사업으로 생각되니 치밀하게 준비하여 타 시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기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⑧ 애항장학회 관련 사무국 운영비 비중이 많음. 운영 전반을 검토하여 주시고, 현재 운영 중인 애항장학회 예산·결산자료 및 사업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람.

문화체육과 9건

① 추사박물관은 추사자료 보존 및 자료제공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수입 확보 등 경제적 역할도 고려해야 함. 한정된 市 예산으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 활성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니 道 사업이나 국가 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원받는 것을 제안하니 검토하기 바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 남양주시 정약용 생가는 박물관 수입보다 주변 경관과 함께 쉼터, 먹거리 수입으로 더 활성화 되어 있는데 운영에 참고 바람.

② 경기소리전수관은 특정단체에 한해 사용된다는 평가가 있는데 많은 단체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람.

③ 한국예총은 사무국과 그 산하 9개 협회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 시 예산이 집중 지원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운영비와 사업비가 내용 대비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전체적으로 평가·점검 바람.

④ 과천문화원은 다양한 산하단체,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타 기관과의 중복프로그램 운영,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치는 강좌, 질적 운영보다는 양적운영으로 판단되니 무분별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점검하기 바람.

⑤ 과천축제가 18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12년간 같은 감독하에 매년 공연, 예술작품 위주의 축제형식으로 이뤄졌고, 시민의 의견을 담은 축제라기보다 일방적인 작품선정으로 이뤄진 축제로 평가되고 있음.

- 추후 축제기획시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하고 분석하여 기획하기 바람.
- 해외공연이 취소되어 위약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바람
- 과천의 문화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축제, 과천 브랜드와 연관하여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축제를 제안하니 검토 바람.

⑥ 과천축제 이사회는 관계 단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들로 위촉하여 이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⑦ 시립예술단은 운영에 18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 운영 찬·반에 대한 시민들의 엇갈린 의견이 있음. 인원·인건비·운영비 및 운영위원회 운영 등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해 추진하되, 단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사기를 높여주기 바람.

- 조례에 의하면 외부공연 수익금의 70%를 단원들에게 보상할 수 있다고 하니 인건비 절감방안으로 검토하기 바람. (타시군 운영사례 검토)

⑧ 생활체육 예산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으로 많은 금액이 배분되어 있는데 사업량에 비해 과다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 바람, 일회성 대회 사업보다는 공원 에어로빅, 방과 후 축구클럽 등 학생,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활동에 더 많이 지원되도록 힘써 주기 바람.

⑨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친환경캠핑장은 갈현동 밤나무 단지를, 탁구전용 체육시설은 자원정화센터(2층) 장소를 활용하기를 제안하니 참고하기 바람, 승마체험장은 한국마사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기 바람.

환경위생과 8건

① 기후변화센터와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사업내용이 중복되고 예산지원 근거가 불명확하며, 사업 평가·통합 등 총체적으로 검토 바람.

②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지원근거에 대한 별도조례가 없으니, 조례 제정을 검토 바람, 사무국장 선임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장의 동의를 얻어 시민대표가 임용하게 되어 있으나, 공동의장인 시의회 의장의 동의도 함께 얻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니 검토 바람.

③ 한국마사회 경주로 소금 관련 분쟁이 현재 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서 진행 중임. 소금이 지하수로 흘러들어 인근 농작물 고사 등 민원이 심각하므로 마사회와 협의·점검하여 향후 토질오염으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바람.

④ 청소업체 위탁 관련 3, 11단지에만 쓰레기집하시설을 보조하여 설치하였으나, 향후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도 보조시설 설치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⑤ 청소업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업내용인데 위탁금 차이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계약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 바람, 앞으로는 형평성을 기해 공정한 계약(공개경쟁입찰 등)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 바람.

⑥ 자원정화센터 위탁금이 줄었는데 예산으로 인해 인건비나 시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관리 바람.

⑦ 「주부교실」,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 단체는 알뜰매장 운영 등 서민경제의 도움을 주고 있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는 단체임.  
- 그러나이들에대한경상비지원규정이 없어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지원에대한조례 제정 등 지원가능한 범위를검토하여 지원해 주기 바람.

⑧ 식품진흥기금이 설치 운용되지 12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 검토하여 조례를 정비 바람.

산업경제과 7건

① 과천시식정보타운 보상시 농기구수리 센터, 측사 등의 영업권 보상 문제 등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추진하여 주기 바람.

② 도시생태농업(옥상텃밭)은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기회를 주는 취지인데, 시민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음.  
- 일반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및 더 많은 텃밭 인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③ 관문, 문원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의 위탁사업은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유지관리비 증가로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 요망  
- 또한 직영 또는 위탁이 효과적인지 분석, 대안 마련 당부 드림

④ 청사이전 관련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안행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와 지속 협의하여 녹지/공원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⑤ 위원회(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이 원활하지 않으니,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⑥ 시 도시가스 공급률이 88.9%로 상당히 높으나 미공급 지역인 82가구에 대하여도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⑦ 상가활성화를 위한 시설비나 사업비 지원이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내용을 평가, 검토 바람, 이마트 입주 관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정보통신과 4건

① CCTV 관제센터 운영 위탁업무는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가 아니므로 기존 위탁운영방식이 적절한지 직영방식이 적절한지 전반적으로 검토 바람.

② 과천은 CCTV가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편으로 무분별한 설치를 지양하고 외곽지역 등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 범죄예방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 잘 관리 해주기 바람.

③ 그린인터넷 사업 관련 올바른 인터넷 문화교육을 위하여 KT 등 관내 통신기업과 연계, 지역 내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및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제안하니 검토 바람.

④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 홈페이지에서 시정뉴스, 과천아카데미 등 동영상 볼 수 있으나 재생속도조절(빠르게 등)이 없어 돌려보기가 어려우며, 버퍼링도 많이 발생하니 보완하여 주기 바람.

세무과 1건

① 지방세 체납및 과오납에 대한징수체계와 환수대책을 강구하여 시세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검토하여 주기 바람.

회계과 2건

① 공사 등 설계할 때 시설물 이용자와 설계자가 소통이 안 되면 공사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주민참여감독제와 병행하여 체계적인 매뉴

얼을 구축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설계 변경 시에는 철저한 확인으로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문화회관 지열시스템은 계약시 업체선정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현재는 하자보수비용으로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있음.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약심사를 거쳐 다시는 이런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람.

②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시장 소유한 공유재산 전수조사가 실시 중에 있는데 매각순위를 고려하고 매각 대상 인접 토지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및 시민들에게 안내 등 세심하게 추진 바람.

- 관사매각검토와 관련 당초 소년·소녀가장 세대 물량(7.5평)은 매각에 신중을기해 주기바람

총무과 6건

①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지침에 의거 누락자가 없도록 관리바라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힘써주기 바람.

②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중에는 사업의 목적과 다른 내용으로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장기간 같은 사업으로 매년 지원받는 단체로 단체별 지원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사회단체별 지원항목을 일일이 점검하여 꼭 필요한 단체·사업인지 총괄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③ 민간위탁사업은 민간사무위탁조례 규정에 의거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 대상사무가 아닌데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사를 1년에 한번하게 되어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 경우 등 규정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음.

-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여 개선 바람(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분석 검토)

④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초기에는 꽃밭 가꾸기 등 환경개선수

준의 사업이 많았으나 점차 발전적인 주제로 공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마을기업 육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 바람.

⑤ 지난 7월 인사이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앞두고 또 다시 인사이드가 있었음. 잦은 인사이드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니 체계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힘써주기 바람.

⑥ 자매도시 여학연수 사업은 주민들에게 호응 있는 사업이지만 시장 재정상황이 어려워 전체적으로 예산감액편성을 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절감 방안은 있는지(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총체적으로 점검·검토하기 바람.



보건소 3건

① 보건소는 시민의 정신건강, 질병예방 등 공공의료영역이 일반진료보다 우선하여야 하며,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공공보건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고, 의료시설기능도 보강하여 보건소의 신뢰성을 높여 주기 바람.

② 관내 음식점이나 인도 등 금연지역에서 여전히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금연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③ 보건소의 사업내용은 타 시군에 비해 서비스의 품질이 양호하고 다양하므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기 바람.

정보과학도서관 4건

① 훼손도서 관리와 관련, 훼손도서를 전시하여 공공재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통해 도서 훼손율이 감

소된 사례가 있으니 도입여부를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② 정보과학도서관 내에 입점했던 기존 식당과 그간 법적다툼이 있었는데, 불친절 및 음식의 질 등 문제점을 잘 분석하여 향후 식당 관리 감독 시 고려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

③ 관내 중심지역에는 정보과학도서관, 도립도서관 등 접근성이 용이한 도서관이 많으며, 새마을문고 도서관도 주로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음.  
-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서관 시설이 미미함. 관내 소외된 지역에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④ 문원도서관 앞에 일부 이용객들이 자전거를 정문 앞에 방치하고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등 안전사고가 예상되니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상수도사업소 3건

① 향후 재건축, 보금자리주택 등 대형공사로 인한 상수도 급수량 증가가 예상되니 사전에 급수 소요량을 검토하여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주기 바람.

② 상수도시설 운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취약한 항목을 개선해 주기 바람,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돗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꾸준히 홍보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여 주기 바람.

③ 꿀벌마를 식수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온 민원사항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사회, 주민생활지원실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환경사업소 2건

① 환경사업소(하수처리 시설) 이전 및 지하화에 대해 논의 중이며, 시장 공약사항으로 임기내(2018년)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주변여건, 예산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 보고하여 실질적

인 추진이 되도록 하기 바람.

② 하수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는 화력발전소에 공급하여 이윤을 올리는 사례도 있으니 분석하여 시장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6개동 주민센터 9건

① 주민자치위원회 등 명단 공개 시 주소, 위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소는 부분 공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공통)

②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지원을 제한하니 검토 바라며, 특히洞 문화교육센터의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은 주민 접근성이 좋아 호응이 좋으니 개설되지 않은 동에서는 검토하여 개설 바람.(공통)

③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역을 보면 문화교육센터 운영 외에 다른 역할이 없으며, 임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위원회 기능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회의시에도 발언권을 골고루 주시고 주체성을 가지고 위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공통)  
- 분기별 또는 반기별 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모여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니 검토 바람.

④ 각동 주민센터 內 빈 공간(회의실 등)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대관은 인터넷 신청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공통)

⑤ 동별 소규모 지원 사업 예산이 추진되다가 삭감되었는데 주민불편사항이 제기될시 조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공통)

- 주민참여예산제 형식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라도 예산 수립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⑥ 각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체육행사 비용의 대부분이 식사비, 경품비, 기념품비 등 선심성 행사비로 집행되고 있는데 본래 행사의 취지를 살려 알차게 행사를 진행하기 바람.(공통)



⑦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등 강사 모집 시 등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각 동별 숨어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여 시장님 신규 사업인 휴먼라이

브리리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니 검토바람.(공통)

⑧ 2013년도 별양동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주민자치위원 선발, 현금영수증관리 등)에 대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별양동)

⑨ 기존 부림어린이집을 개설하여 지하카페를 설치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곳이니 수익사업이 불가능하다면 시민들이 모여 회의, 모임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부림동)

**시설관리공단 4건**

① 자판기 사업,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상이군경회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으나 일부 업체의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에 문제가 있음.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바, 반드시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바람.

②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시 광고를 삽입하면 수익창출이 될 수 있으니 타 지자체 사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길 제안함.

③ 시 재정상황이 어려워 시설관리공단의 예산감액 편성이 예상되는데 구조조정으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에 없도록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별로 수지 분석 등 신중하게 판단하고 시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④ 시설관리공단 내 공개채용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바 있으니 인력 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주시고, 공단 내 강사들의 개인교습 등에 대해서는 양성화, 개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감사 종합의견**

이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하반기부터 2014년도 상반기까지의 시정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성과결과가 미흡한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용역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용역인지 점검하고 소관 위원회의 자문을 최대한 이용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여 주시고, 각종 설계 시에는 설계 단계부터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설계 변경 최소화 등 운영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위탁금,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사업의 내용을 점검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 지원, 성과관리도 철저히 하여 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도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업체의 사업 내용과 재정운영에 대하여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각 기금의 계속 존치여부를 판단하여 일반회계 차입금은 조속히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 제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 재정상황 악화로 내년도 예산 편성은 긴축예산이 예상되니 시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주시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 정비를 하시어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반드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 등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의원 윤미현** ▶▶▶ 안녕하십니까? 윤미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봉선 의장과 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개원 이후 과천시 업무보고와 결산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과천시 행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천시는 고시출신부터 20년 이상의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행정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전문가들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많은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파악된 것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고, 누구 하나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간부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남의 돈 쓰듯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고, 누수된 사업비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과천시의 행정을 보면서 절반의 회의와 절반의 분노를 느낍니다.

시장님, 지엽적인 행정오류와 행정실수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과천시가 그동안 행정을 엉터리로 추진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2007년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 토지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법 등 관련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가격으로 보상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수백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더 지급하였고, 여기에 10억 원의 이자를 시민의 혈세로 지불하였습니다.

또, 과천시는 오래전부터 과천을 화훼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 2011년 삼성 플러리엄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당시 삼성플러리엄이 과천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과천시가 51%

의 분양 책임과 사업비 대출을 담보하겠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이 같은 독소조항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고, 30일 안에 체결해야 할 본 계약은 2년이 넘도록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삼성 플러리엄은 2년 후 2013년 사업 참여를 포기합니다. 과천시는 삼성플러리엄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35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과천시의 귀책사유로 35억 원을 날리게 됩니다.

특히, 과천시는 삼성플러리엄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는데도 사업용



역을 진행시켜 47억 원의 예산을 낭비합니다.

시장님,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과 관련해 계약한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92억 원입니다. 단일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만 92억 원이 든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전문가를 만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들었을까요? 그 전문가는 자료로 보자마자 "과천시가 용역회사 먹여 살렸네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용역을 너무나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사업으로 과천시는 보증금 35억 원과 이미 집행된 용역비 47억 원을 합하면 82억 원의 예산이 증발된 것입니다. 또 이 사업은 정치적으로도 악용됩니다. 본 의원이 자료와

여러 관계자를 만나 본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과천시는 과천화훼종합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과 부지선정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가장 유력한 부지는 선바위역 인근 부지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기무사 부지 인근으로 부지가 바뀝니다. 기무사가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유력한 후보지를 포기하고, 청계산 인근으로 부지가 바뀐 것입니다. 시의 행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사이전 반대 운동도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상실한 채 정치적으로 악

편성했지만, 지열시스템 보수가 어렵고, 보수하더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확신이 없어 보수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그런데 과천시가 냉난방기 80여 대를 구입하면서 어떤 변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 질문을 했더니 과천시 공무원은 "개개인의 온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냉난방기를 설치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거짓말이 바로 탄로가 나는데도 시의원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시의원에게도 이렇게 응대를 하는데, 시민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하는 생각을 하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열시스템 설치비 15억 원, 냉난방기 80대 구입비 6억 원을 포함 21억 원을 낭비했습니다.

시장님,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아시죠.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약 3km 구간과 3단지 방음벽 설치 포함할 설계비가 30억 원이 넘습니다. 과천시에서 실시한 우회도로 실시설계는 3년 동안 과천시가 움켜쥐고 있다가 최근에 LH로 이관했습니다. 이 설계비는 LH와 정산을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설계비 과다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설계비 역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봤더니 설계비가 과다책정 됐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설계든 공사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책무인데, 과천시가 발주할 설계나 공사비, 용역비는 모두 과다책정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앞으로 과천시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과 설계, 공사비는 토목학회 등 전문가 집단에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천시 행정의 민낯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됐는데도 과천시의 감사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만약 공무원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예산을 운용했겠습니까?

시장님은 왜 사업이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되었는지, 왜 필요 없는 용역

### • 행정사무감사시 주요내용과 그 해결

의원 윤미현

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의 서명운동 참여하고,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들이 시위까지 벌였는데도 과천시가 얻은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사이전 반대 운동을 정치적 이슈로 악용했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정치적인 행정,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시장님, 과천문화원과 장애인복지관의 지열시스템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까? 2010년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냉난방기인 지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지열시스템은 1년도 지나지 않아 고장이 났고, 결국 2012년에는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과천시는 궁여지책으로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냉난방기 80여 대를 구입해 설치했습니다. 또, 지열시스템을 보수하기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을 실시했는지, 용역비는 왜 이리 과다 책정 됐는지, 말도 되지 않는 삼성의 제안서를 누가 수용했는지, 왜 지열시스템을 선택했고, 사후 조치를 하면서 시의회까지 거짓행정을 해야 했는지, 꼼꼼히 따져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장님이 이 일을 흐지부지 넘기시면 시의회에서 한국 토목학회 등의 자문을 얻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행정의 문제는 신계용 시장님 취임 이후에도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현재 환경사업소 부지에 건립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환경사업소 소장님은 환경사업소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1개월 지난 현재에는 환경사업소를 지하화 시키고, 이 부지 지상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부지는 현재 표류 중인 화훼종합센터 부지로 옮기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지하화 사업에만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과천시 재정을 감안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는 24시간 운영되는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현 시설물을 가동하면서 지하화 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 계획이 수시로 바뀐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또, 서울대 유치사업도 일반건물에 입주하기 때문에 부지가 필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도 1개월 채 지나지 않아 변경됩니다. 건물 입주에서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의 핵심 공약만 검토해 봤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사업 부지 포함 3천억 원 이상이 드는 사업이고, 서울대 유치사업도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양재-과천 지하철역은 광역도로망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사업소 지하화 사업도 1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시 재정을 감안해

볼 때 시장님 임기 내 이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이 사업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여인국 전시장님이 추진해 온 3대 프로젝트 사업을 연상케 합니다. 과천시가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 같은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 시는 재정파탄의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사업 계획을 수정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정은 한 가정의 살림규모가 아닙니다. 연 2천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과천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미래를 바라보고, 과천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가 어디를 관통하는지 아세요. 바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앙을 관통합니다. 이 도로는 고가 차도로 높이가 무려 27m입니다. 이 정도의 높이면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주민생활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갈현동 군부대 인근에는 11개 부스의 요금소까지 설치됩니다.

과천 지역의 신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보금자리주택지구 27m 높이의 고가 차도가 통과하는데도, 그동안 이에 대해 검토는 물론 관계기관에 항의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안양시와 의왕시는 국토부와 시공사에 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의왕시 주민들은 항의시위까지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왕시는 의왕시 구간을 지하화하기 전까지는 행정협조를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사업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방음벽 설치비용입니다.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식정보타운 지구지정을 받을 때 방음벽 비용을 과천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개발 방식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변경됩니다. 현재 LH와 국토관리청이 방음벽 설치비용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구간 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업체는 과천시가 방음벽 비용을 내는 조건으로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가 방음벽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인국 전시장님도 의회에서 과천시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신계용 시장님도 이에 대한 추진 경위를 파악해 과천시가 방음벽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답 변

### 과천시장 신계용



시장 신계용 ▶▶▶ 과천시  
시장 신계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문봉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윤미현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 과정에서 과천시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였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2007년 당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해제 전 가격으로 일부 토지를 협의 매수하였으나, 보상과정에서 해제 후 가격으로 토지를 보상하라는 경기도 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한 것입니다.

좀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예산이 일시에 투입되어 예산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과 관련한 보증금 문제 및 용역비 과다 책정과 부지선정 과정에서 본 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과천시가 삼성물산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였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삼성물산을 대표로 하는 플로리움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서 독소 조항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서 해제대상 지역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경우 민간의 출자비율 총합계가 50% 미만으로 하도록 된 규정을 플로리움 컨소시엄이 인용한 것으로, 당시 우리 시로서는 재정 리스크가 우려되므로 조건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이에 대해서는 과천시의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2년여간 과천시 재정적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과천시가 당초 제안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여 플로리움 컨소시엄이 건설공제 조합에 증권으로 예치한 보증보험 35억 원을 과천시에 귀속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용역과 관련해서는 계약체결에서 공사감리에 걸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알려진 CM (Construction Management) 방식을 도입 일괄 추진하였으나 결과

적으로 정상추진하지 못하게 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용역비 47억 원 집행은, 총 7개 용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하게 집행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지 선정은 2005년도에 실시한 “수도권 과천화합종합센터 개발수요 분석 및 입지·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 4개의 후보지를 놓고 검토한바, 선바위역 주변과 기무사령부 잔여부지 등 2개의 후보지로 압축되었고, 2개의 후보지를 두고 비교 검토한 결과 현재의 부지가 국공유지 분포율이 52.17%로 높아, 토지매수 등의 사업예산 리스크가 가장 적다고 판단하여 2006년 3월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이전 반대운동도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상실한 채 정치적으로 악용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사이전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결정되어 강력하게 추진된 사업으로서, 과천시 차원에서 이전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과천 시민과 과천시, 시의회가 합심하여 반대운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중앙행정 기관들이 청사에 입주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중앙정부에 청사유휴지 활용방안 등 청사이전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원과 장애인복지관 지열시스템 설치에 따른 예산낭비를 지적하셨습니다.

과천문화원과 장애인복지관 지열시스템은 기후변화대응정책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로,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들며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 지열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실제로 친환경 인증 건축물로 인증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고장과 결함으로 인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우회도로 개설사업 설계비의 과다문제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우회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은, 당초 LH와의 협약에 의하여 과천시와 LH가 공동으로 2008년, 11월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용역수행 과정 중 지방도 309호선 확장공사로 인한 3단지 주민들의 소음해소 대책민원이 제기되었고, 시는 이를 적극 해소하고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방음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LH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여, 2011년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전환할 당시, 3단지 방음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LH에 이관한 사항입니다.

이 결과, 방음터널 공사비 309억 원에 대하여 경기도 157억 원, 과천시 104억 원, LH 48억 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2017년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소요된 방음시설 설계용역비 약 29억여 원에 대하여도, LH 경기지역본부와 정산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본사와 최종 협의 중이며, 금년 내 정산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조성에 따른 환경사업소 이전 및 서울대 유치사업의 공약이행 변경내용과 시 재정여건 대비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상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공약실천 과정에서 더 좋은 대안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공약실행방안은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환경사업소는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 조성을 위해 서초보금자리 맞은 편 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이전하는 것 보다는 기존 처리장을 증설하고 지하화하여 상부를 주민 편익시설인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조성할 경우 주민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서초 보금자리 민원문제와 환경부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국비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공약이행 방안을 수정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유치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부지 확보나 입주건물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계획이 변경된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대 유치 여건이 여

의치 않아, 서울대 유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밝혔듯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조성은 계획단계부터 전문 용역을 통하여 사업효율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민간 사업자를 선정, 전문기업 및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는 사업추진 방식과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신설은 현재, 강남권 3구와 공동 협력하여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국가가 70%, 지방은 30%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에서 분담하게 되는 30%도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과천시와 서초, 강남, 송파구가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단계에서 건설비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고가 차도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소음 등 주민생활 피해 예상 및 방음벽 설치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계획 초기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 계획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천시에서도 절대적인 반대를 하여 왔으나, 본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부득이 시행될 수밖에 없어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과천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경관을 고려한 구조물 계획, 교량 하부공간 활용 계획 등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방음시설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LH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상호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방음터널 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량 구조에 대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천시가 사업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추진상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울러 시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경우 그 결과를 검토히게 수용하겠습니다.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과 사업추진 시 투명하고 열린 시정을 펼쳐달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업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전문가에게 충분히 자문을 구한 뒤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시정을 펼치지 않고, 시민과 시의회와도 충분히 상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공감대가 없는 행정은 결과적으로 낭비행정을 불러온다는 것이 평상시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윤미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봉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과천시는 현재 위기가자 기회입니다. 기반부터 새롭게 닦아 옛 명성을 다시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제2의 힘찬 도약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 번 문봉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및 답변내용은 지면상 과천시의회홈페이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gccouncil.go.kr](http://www.gccouncil.go.kr)





### 행정사무감사시 현장확인

- 일 시 : 2014. 10. 15. (수)
- 장 소
  - 어린이공원(과천동529-4)
  - 체육시설(과천동 527-14)
  - 주차장(주암동433-5)
  - 주차장(주암동454)
  - 어린이공원(주암동19-2)
  - 하수슬러지시설(환경사업소 내)

### 제202회 임시회

- 기 간 : 2014. 10. 28. (화)
- 안 건 :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 의결사항 : 원인가결

